

남으면 새것으로 바꾼다? 업그레이드해 계속 쓴다!

2010. 04. 19

- 스마트폰 OS·전자책은 물론 카메라에 세탁기·오븐까지...
- 달라진 전자 제품에 업체 서비스도 변화

중견 전자업체 아이리버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전자책 단말기 ‘스토리’ 이용자들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려면 커서를 움직여 일일이 철자를 입력해서 확인해야 했다. 회사 게시판에는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이리버는 3차례에 걸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순 오류는 물론 각종 불편사항 29가지를 개선했다. 사전 기능은 글자 위에 커서를 놓으면 단어 뜻이 나타나도록 했다.

전자업체들의 업그레이드 관행이 바뀌고 있다. 일부 성능을 바꿔 신제품이라고 팔아먹거나 팔고 나면 그만이라던 과거와는 달라진 변화상이다.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기능이 향상되는 요즘 전자제품의 특성상 업그레이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가전업체 밀레 직원이 기존에 판 구형 모델 제품을 새로운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능)을 넣어 한층 성능을 높였다.

아이폰 3세대(G) 이용자도 OS 4.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올 6~7월쯤 나올 아이폰 4G를 사지 않더라도 2년 약정 내 구형 모델은 공짜로 같은 기능을 덧붙일 수 있다. 약정이 끝나면 유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올림푸스한국은 19일 작은 DSLR 카메라인 ‘PEN’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때 움직이는 피사체를 흔들림 없이 잡아주도록 자동초점(AF)의 속도를 약 15%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판매가 늘어난 스마트폰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상 제품이다. 애플은 8일(미국 현지시간) 새 모바일용 운영체제(OS) 4.0버전을 공개했다. 아이폰의 단점인 다중작업(여러 동작을 한 번에 수행하는

이런 제품의 등장은 국내 시장의 서비스 개념도 바꾸고 있다. SK텔레콤도 8일부터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이’의 OS를 버전 2.1로 데이터 통화료 없이 업그레이드해주고 있다. 구동 안정성과 반응속도, 배터리 효율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용 ‘T옴니아2’에 얹은 윈도우 모바일 OS 6.1을 한 단계 높은 6.5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에 나섰다. 다만 KT용인 ‘쇼옴니아’의 OS 업그레이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LG전자도 KT와 ‘안드로원’의 안드로이드 1.6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다.

KT는 당초 노키아의 ‘5800 익스프레스뮤직’ 펌웨어 향상을 미루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국내 사용자 5만명이 해외의 개선된 펌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서명운동으로 불만을 표시한 결과다.

세탁기나 로봇청소기 같은 가전제품도 앞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가전업체인 밀레는 드럼세탁기와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오븐 등에 ‘PC’라고 적힌 모델에 한해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다.

윤일숙 밀레코리아 마케팅팀장은 “노트북과 연결해 작동 및 제품 상태 파악이나 원격조작은 물론 새로 개발한 기능은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탁기의 경우 간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옷감 세탁방법이나 세제 투입 등 개선된 성능을 넣어준다.

기본 동작 성능은 멀쩡한데 일부 기능이나 디자인이 달라졌다고 새 모델이라고 파는 기존 방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당장 많이 파는 것보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길게 보면 득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병역 기자